

2017년 11월 전문건설업(SC) 경기실사지수(BSI)

I. 2017년 11월 전문건설업 경기평가 및 12월 전망

○ 11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10월보다 크게 하락

- 11월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¹⁾는 전월보다 크게 하락한 62.7로 조사됨. 이는 전월의 전망치인 69.7보다 낮지만 전년도의 4분기와는 유사한 수준임. 여기에 차월인 12월에 대한 전망치가 금월보다 낮을 것으로 집계된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사결과는 동계 비수기를 앞둔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²⁾.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월보다 크게 낮아진 69.4(94.6→69.4)로, 지방은 전월보다 소폭 감소한 60.9(66.9→60.9)로 집계됨. 다음 12월에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금월보다 낮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1> 2017년 11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12월 전망

구분	종합	지 역	
		수도권	지방
2017년	11월 평가	69.4	60.9
	12월 전망	61.1	51.9



[그림-1]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전망 추이

1)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2017년 5월부터 월간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이전의 추이는 종전까지 분기로 조사된 경기실사지수값을 이용함.
 2) 참고로 국내 주요 기관들은 금년의 경기회복세가 꺾일 가능성과 함께 차년도 건설투자의 감소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음. 때문에 동 조사의 응답업체들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 건설경기의 침체가 가시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하락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은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한 60.9(63.2→60.9)로 나타난 반면 하도급은 전월보다 하락정도가 큰 50.9(62.6→50.9)로 조사됨. 지역별로는 원도급은 수도권은 하락한 반면 지방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하도급은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78.4→63.9)의 하락폭이 컸던 반면에 지방(58.5→60.2)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함.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73.0→52.8)의 낙폭이 매우 컸으며 지방(59.3→50.4)도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표-2> 2017년 11월 전문건설업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비교)

구분	구분	종합	지 역	
			수도권	지방
원도급	11월 평가	60.9	63.9	60.2
	12월 전망	51.5	55.6	50.4
하도급	11월 평가	50.9	52.8	50.4
	12월 전망	45.6	52.8	43.6



<원도급>



<하도급>

[그림-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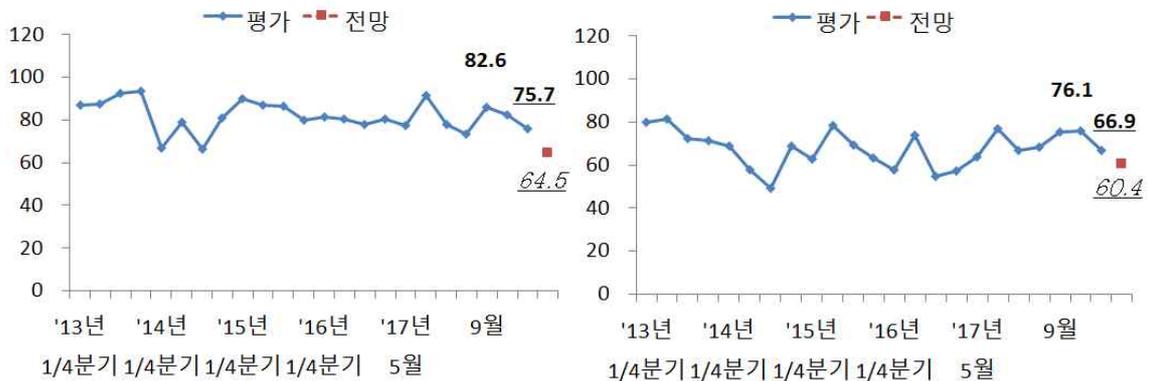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하락, 자금조달지수는 크게 하락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전월보다 하락한 75.7(82.6→75.7)로,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도 전월까지의 추세와 달리 크게 하락한 66.9(76.1→66.9)로 조사됨. 이는 전자는 전년 동기보다 조금 낮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전년보다 높은 수준임.
- 공사대금수금지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105.4→91.7)의 하락폭이 매우 컸던 반면, 지방(75.4→71.4)은 전월 대비 소폭으로 하락함.
- 자금조달지수는 수도권(89.2→77.8)과 지방(72.0→63.9)에서 모두 전월보다 큰 폭으로 하락함.

<표-3> 2017년 11월 전문건설업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공사대금수금	11월 평가	75.7	91.7	71.4
	12월 전망	64.5	72.2	62.4
자금조달	11월 평가	66.9	77.8	63.9
	12월 전망	60.4	66.7	58.6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그림-3] 전문건설업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추이

3. 인건비지수

○ 인건비지수는 하반기 내내 상승

- 인건비 경기실사지수는 전월보다 상승한 65.1(63.2→65.1)로 나타남으로써 금년 하반기 들어 줄곧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감. 이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건설현장에서 종전보다 높아진 인건비가 이제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자리잡은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음³⁾.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59.5→52.8)은 소폭 하락한 반면 지방(64.4→68.4)은 소폭 상승함. 이는 아파트 입주물량의 증가 등 지역에 따른 인력수요의 편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표-4> 2017년 11월 전문건설업 인건비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인건비	11월 평가	65.1	52.8	68.4
	12월 전망	66.9	58.3	69.2



[그림-4] 전문건설업 인건비지수 추이

3) 이와 관련해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실내마감공사에 소요되는 인력 등을 중심으로 급증한 수요에 따라 인건비도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를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임. 왜냐하면 건축과 달리 토목분야에서는 공공공사의 발주감소 등에 따라 오히려 인건비와 장비대여료 등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적지 않기 때문임.

4. 자재수급지수⁴⁾

○ 자재수급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하락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전월에 이어 소폭 하락한 94.7(98.1→94.7)로 조사됨. 대개 100을 넘는 경우가 많은 동 지수의 하락에 대해서는 건설 관련 주요 자재들의 단가인상요구와 함께 수급문제 등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⁵⁾.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102.7→105.6)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반면, 지방(96.6→91.7)에서는 전월보다 소폭 하락함으로써 그간의 추세를 지속함.

<표-5> 2017년 11월 전문건설업 자재수급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자재수급	11월 평가	94.7	105.6	91.7
	12월 전망	99.4	108.3	97.0



[그림-5] 전문건설업 자재수급지수 추이

- 4)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극히 드물기 때문임.
- 5) 부산·경남 지방의 경우 지난 11월 초에 해당 지역의 레미콘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한 바 있는데, 주된 이유는 바닥모래의 공급난 등에 따른 가격상승요인을 레미콘에 반영하겠다는 것임. 철근 등의 기초자재는 자재 자체의 단가상승과 함께 가공공장들의 작업단가 인상같은 요인들도 맞물려 있는 상황임. 또한 마감공종에 주로 사용되는 드라이모르타르의 경우는 현장수요의 급증에 따라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도 알려짐.

5. 건설장비수급지수⁶⁾

○ 장비수급지수는 전월과 유사

- 장비수급지수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인 107.1(106.5→107.1)로 나타났으며 다음 12월에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주로 야외에서 사용되는 건설장비 등이 동계비수기를 맞아 건설현장에서의 수요가 줄어든 것에 원인이 있을 것임.
- 건설장비의 경우에는 다음 12월은 물론 내년 초에도 지금 같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임.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장비수요의 편차가 클 수도 있겠지만 이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113.5→108.3)은 전월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소폭 하락했으며, 지방(113.5→111.1)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임.

<표-4> 2017년 11월 전문건설업 건설장비수급지수 (비교)

구분		종합	지역	
			수도권	지방
장비수급	11월 평가	107.1	108.3	106.8
	12월 전망	111.2	111.1	111.3

6) 건설장비수급지수는 2017년 5월부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조사에 신규로 추가된 항목임.

※ 참고: 2017년 11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분		전체	지역		
			수도권	지방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62.7	69.4	60.9
		차월 전망	53.8	61.1	51.9
공사물량	원도급	금월 평가	60.9	63.9	60.2
		차월 전망	51.5	55.6	50.4
	하도급	금월 평가	50.9	52.8	50.4
		차월 전망	45.6	52.8	43.6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75.7	91.7	71.4
		차월 전망	64.5	72.2	62.4
	자금조달	금월 평가	66.9	77.8	63.9
		차월 전망	60.4	66.7	58.6
인건비		금월 평가	65.1	52.8	68.4
		차월 전망	66.9	58.3	69.2
건설자재 수급		금월 평가	94.7	105.6	91.7
		차월 전망	99.4	108.3	97.0
건설장비 수급		금월 평가	107.1	108.3	106.8
		차월 전망	111.2	111.1	111.3

문의: 이은형 (책임연구원, eunhyung@ricon.re.kr)